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말씀: 요 21:15-19

8월 17일 영국 데일리메일,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의 숲에서 19세 소녀 올라와 그의 양아버지 이고르가 곰의 습격을 받아 숨졌다고 보도했다. 딸은 산 채로 곰에게 먹히며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했다. 어머니 타티아나는 딸과 함께 낚시를 간 양아버지에게 전화했지만, 양아버지는 이미 곰의 공격에 목숨을 잃은 뒤였다.

“엄마, 곰이 나를 먹고 있어. 너무 고통스러워 도와줘!”

타티아나는 즉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1시간 30분이 더 걸렸고, 그동안 딸은 곰에게 먹히며 서서히 죽어갔다.

올가는 죽기 전 어머니와 3차례 전화를 했다. 어머니는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올가는 “이번에는 아기 곰 3마리가 나를 먹고 있어. 이제는 아프지 않아. 미안해, 엄마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I love you! 노르웨이 총격 사건, 아이와 엄마의 대화,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나 듣고 싶어 하는 말이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

나도 아이들에게 간단히 문자하거나 e-mail 보낼 때 늘 ‘사랑한다’고 쓴다. 아이들도 그렇고.

당신은 누구를 사랑하는가? ★★★

성경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부부, 부모 자식, 사제지간의 사랑이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원한다.

눅14:26,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물은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섬기느냐? 희생하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사랑하느냐?”이다.

배경(20, 21장)

피폐한 유대 땅에 예수님 등장, 메시아 표적, 성경 말씀 강해, 놀라운 권능

유대인 지도자들의 반발,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20:19-23과 같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20:24-29과 같이 도마가 있을 때에 또 나타나셨다.

이런 표적들을 주신 목적: 요20:30-31

또한 눅24:49를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다.

그런데 이런 표적과 명령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고기를 잡으러 다시 바닷가로 나갔다. 실패와 좌절 상태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3절).

아침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다가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다(6절).

153마리

땅에 올라오니 이미 빵과 물고기와 숯불이 마련되어 있었다(21:9).

식사 뒤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으셨다.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것들

어려울 때마다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의 시창각 교육

1. 눅5:1-11,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짐.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행위를 부정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2. 빵과 물고기: 오병이어(요6),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요6:66-71)

3. 숯불: 눅22:56, 십자가 사건 전에 불 앞에서 주님을 배반함. 나의 최악 된 모습

이때에 주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요한복음의 세 초청

1. 와서 보라(요1:39), 요한의 두 제자(안드레) 어디 거하십니까?

2. 와서 마시라(요7:37), 장막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 와서 먹으라(요21:12),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람의 영적 육적 필요를 모두 만족시켜 주신다.

베드로의 몸을 닦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먹게 하고 개인적인 교제를 먼저 나누셨다.

요삼 2절, 무엇보다도 네 혼이 형통함같이

개인적인 전도의 방법

죄 문제를 다루는 방법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와 사적으로 만나 베드로의 죄를 용서하셨다(눅24:34).

그러나 베드로의 죄는 공적인 죄이다. 그러므로 공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사적인 죄는 사적으로 하나님께 고백, 공적인 죄는 공적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했으므로 세 번 동일하게 물으시고 그를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는가?

무엇을 물으시는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째 질문: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개역성경 등: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다.

네가 사랑하던 모든 것, 배, 그물, 물고기, 취미, 직업, 배우자, 자식, 이 세상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요일2:15-17).

1. 개인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나를 사랑하느냐? 교회를, 직분을, 교회 일을, 모임을 사랑하느냐가 아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초점은 예수님께로 모여져야 한다. 그 뒤에 모든 일을 해야 한다.

2.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막12:30).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3. 행동으로 사랑하여야 한다.

베드로는 사랑의 고백을 하고 회복된 이후에 행동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였다(18절).

4. 믿음으로 사랑하여야 한다(벧전1:8).

사랑에는 믿음이 포함된다.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5.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

한 소녀의 인형 이야기, 여러 인형, 네가 가장 사랑하는 인형: 머리는 빠지고 코는 깨지고 한쪽 다리는 없고 등. 왜 사랑하니? 내가 아니면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 역시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무지가 아니라 무조건이다.

예수님 사랑의 확증

당뇨 계측기: 감정이 아니다. 증거가 있어야 한다.

1.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들을 지킨다(요14:23).

2. 그분을 사랑하면 옆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한다(요일4:20).

3.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조절을 받는 사람을 살아야 한다(고후5:14).

약속

고전2:9

결론

당신은 좌절하고 있는가?

회복되기를 원하는가?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1. 개인적으로, 2. 뜨겁게, 3. 행동으로, 4. 믿음으로, 5. 무조건

★★★